

126회 음향팀 전체 플랜(231229 작성분)

월요일 또는 수요일 오후 3시, 회의하는 날 한 끼 같이 먹기가 목표

****남진의 동지 -> 연출적으로 테마로 활용되는지 연출한테 물어보기**

****오퍼 인원 확정 -> 두 명에서 세 명으로 제한 공연 주와 시연회 주의 스케줄을 중점으로 결정**

****필수 참관 많아지면 오퍼팀 전용 좌석 만들기? 오퍼팀 오퍼 연습이 용이하도록?**

****팀장이 할 것;**

- 음향 스터디 용어 정리
- 팀원들 간의 친목 도모
- 필요 음향 미리 리스트업
- 팀원들 의견 취합
- 음향 편집
- 오퍼 기기 사용법 숙지
- 큐시트 취합 및 작성
- 키스텝 회의마다 브리핑
- 연출에게 컨펌받기
- 공연 당일 팀원 지휘 및 관리
- 조명팀원과 음향팀원 연결
- 조명팀원에게 전달(시간만 맞으면 오퍼팀 합동회의도 괜찮을 듯)

1. 1/2

음향 스터디, 용어 설명, 친해지기

2. 1/8(대본 배부 직후)

대본 리딩1(대본 읽고 여기서 필요한 음향이 있는지 체크해주세요, 다른 아이디어는 일단 메모해두세요)

- 대본 소감 공유
- 어울리는 분위기
- 추상적인 감상 위주

3. 1/15 *오후 2시(배역 오디션)

대본 리딩2

- 음향 표시되지 않은 부분에서 있으면 좋겠다는 음향 1가지 이상 제안
- 대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효과음 및 음향 리스트업(*숙제)
- 팀원들과 함께 읽으며 확인 및 리스트 완성(리스트 분배)
- 녹음 필요 음향 체크

4. 1/24 **장면연습 참관 시작

효과음 찾기, 음악 방향성 고민

- 분배된 리스트 항목의 효과음 하나당 3-4 개씩 찾아오기(*숙제)
- 효과음 추리기-> 연출 컨펌
- 하우스(입장/퇴장), 막간 음악, 커튼콜 음악 위치 및 분위기 상의
- 주 1회 연습 필수 참관-> 필수 참관 후 장면의 분위기, 이에 따른 음악의 방향성 고민
- 녹음 필요 장면 확정(아버지 유서? 노인?)

5. 1/29 **장면연습 참관

효과음 확정 및 녹음 시작, 음악 선정 시작

- 녹음 시작(연출진, 캐스트와 스케줄 상의 필요)
- 효과음 확정 (장면연습 참관 시 오퍼 연습을 통해 큐 익히고 확정, 수정 가능성 매우 높음)
- 주 1회 연습 필수 참관
- 음악 찾기 시작(하우스, 막간, 커튼콜, 기타 음악)
- 4개씩 쌓일 때마다 연출에게 컨펌

6. (2/5-2/11)*설날[2/5, 2/7]

녹음 음향 확정 및 음악 선정

- 주 1회 필수 참관
- 녹음 음향 편집 후 컨펌
- 음악 선정➔4개씩 쌓일 때마다 연출에게 컨펌(참관 시 장면 연습과 함께 들어보고 확인)
- 참관 시 효과음 구비하여 팀장 및 팀원의 효과음 오퍼 큐 및 타이밍 숙지

- 효과음 편집 및 확정

7. (2/12-2/18)[2/14]

음악 확정 및 음악 편집, 큐시트 만들기

- 음악 연출 컨펌 확정
- 음악 편집
- 큐시트 작성
- 주 1회 연습 필수 참관 이제 두 번 세 번 나오면 더 좋습니다
- 참관 시 오퍼 연습, 조명과 함께 오퍼 연습하며 봐도 좋을 듯(명륜 동방 오퍼 기기 사용 확인)

8. (2/19-2/25)[2/21]

- 큐시트 확정
- 큐시트, 음향 수시 수정
- 주 1회 이상 참관하며 오퍼 연습

9. (2/26-3/3)*시연회 주[2/26](시연회 사전 준비 후 수시 방문)

- 큐시트, 음향 수시 수정
- 오퍼 연습

10. (3/4-3/10)*공연주, 향시 상주

- 공연장 상황에 맞춰 큐시트 수시 수정
- 오퍼 연습
- 오퍼